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4. 4. 19.(금), 14:00
2. 장소 :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8	민조홍*, 김재욱**, 문혜성, 민병원, 장원경, 박서림, 이명경, 한은주	안동인(간사)
불참인원	4	정연화, 전현주, 오숙환, 김정권	

* 의장 **부의장

4. 안건

- 제1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제2호의안: 2023학년도 결산안 자문
- 제3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개정안 심의
- 제4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5. 개회선언

- 가. 간사는 교수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제8기 대학평의원회 교수 평의원 4명(민조홍, 문혜성, 장원경, 민병원)과 동창 평의원(한은주)이 새롭게 위촉되었음을 안내하다.
- 나. 간사는 정연화, 전현주, 오숙환, 김정권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전체 평의원 12명 중 8명 참석으로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다. 간사는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다.

6. 안건 자문 및 논의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1) 간사는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장, 부의장 선출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설명한 후,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평의원들에게 의견

제안을 요청하다. 참고로 작년 대학평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후보를 호선으로 추천, 재청을 받은 후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선출하였고, 부의장은 2명의 후보를 호선으로 추천받아 투표하였던 예도 있음을 안내하다.

- (2) 김재욱 평의원이 기존과 같이 호선하고 재청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전원 동의하다.
- (3) 장원경 평의원이 교수평의회 의장인 민조홍 평의원을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추천하고, 문혜성 평의원이 재청하며 참석 평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4) 이명경 평의원이 직원 평의원인 김재욱 평의원을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으로 추천하고, 장원경 평의원이 재청하며, 참석 평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5) 이에 간사는 2024년도 제8기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민조홍 평의원, 부의장으로 김재욱 평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호의안: 2023학년도 결산안 자문

- (1) 의장은 제2호의안으로 2023학년도 결산안 자문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다.

(배석자: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

- (2) 의장은 의료원 배석자 소개 및 안건 설명을 요청하고, 의료원, 목동병원, 서울병원 순서로 진행되는 결산안 내용 중 의료원 설명 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다.
- (3)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은 이화의료원의 2023학년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3) 문혜성 평의원은 의료원 수익 대비 지출(인건비,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 등)이 더 커서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4) 전략기획본부장은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상황이 다름을 설명하며 서울병원은 진료 실적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 목동병원은 전공의 사태로 예정보다 마이너스인 상황임을 말하다. 서울병원 건립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에는 은행 대출 및 법인 대여금이 있고, 본교에 지급할 전출금이 있는데 작년부터는 전출금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다. 또한, 미전출금도 금년부터 상환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다. 의료원이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부채가 많아서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계속 투자를 하면서 갚아 나가고 있고, 서울병원 실적이 상승세이기 때문에 나아질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하다. 이번 의료 사태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지만 부채 상황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설명하다.

- (5) 문혜성 평의원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는 줄일 수 없는 항목인데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지를 질문한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관리운영비 차이가 크고 수입은 비슷한데 재료비도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6) 전략기획본부장은 인건비가 이전 대비 증가한 것은 2023년에 상급종합병원 평가로 목동병원에 고액 연봉을 받는 입원전담 전문의 등이 10명 이상 필요하였고, 병상을 늘리면서 간호사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약재비가 많이 나가지만 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타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음을 설명하다. 또한 약품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 (7) 문혜성 평의원이 관리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 질의하다.
- (8)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은 원무팀 직원들의 경우 목동은 의료원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병원은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직접 채용한 직원은 인건비로 포함되지만 외주 용역의 경우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어 서울병원과 목동병원은 기본적으로 용역비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한다. 또, 건물이나 의료장비 등의 감가상각비가 30년 된 목동병원의 경우 127억 원 정도이지만, 최근 개원한 서울병원은 340억 원 정도 규모로 차이가 크다고 말한다. 그리고 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 요건이 있어 채용이 불가피하고 간호사 3교대 근무 등으로 시간외수당 등이 발생하여 인건비가 증가 되었음을 부연 설명하며, 병원측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말한다.
- (9) 문혜성 평의원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운영비 등의 절감이 필요한데 이런 요인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 현재 상태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상세히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10) 전략기획본부장은 병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인건비를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인력은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전문화 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 (11) 간사는 일반직 인건비는 서울병원과 목동병원의 차이가 없으나 목동병원의 용역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양쪽 병원의 규모 및 고용 방식에 대해 질의하다.
- (12) 목동병원 재무팀장은 정규직이 가장 많으며, 서울병원의 용역은 사무직 중의 원무팀 직원 일부와 간호보조원 정도라고 설명하다. 병원 용역의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청소나 보안 등으로 서울병원과 목동병원의 기본적인 용역비는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용역비 내 외주 검사비라는 항목들도 있어 이전 설명은 특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만 설명한 것이라고 말한다.

- (13) 문혜성 평의원은 특성화 병원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병원의 대동맥 혈관병원의 실질적인 수익에 대해 질의하다.
- (14) 전략기획본부장은 서울병원의 예를 들면 한달에 40억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원가분석은 아직 해보지 않았다고 답하다.
- (15) 문혜성 평의원은 특성화 병원으로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원가분석 절차 없이 계획을 한 것인지 질문하다.
- (16) 전략기획본부장은 원가분석을 한 뒤 특성화 병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진료실적을 보면 목동병원은 안정화가 되어 올라가는 구조이며, 서울병원은 셋업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현재는 서울병원의 실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17) 문혜성 평의원은 현재 설명만으로는 특성화 병원으로 인한 수익 증대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며, 차기 발표 시에는 원가분석을 통해 특성화 병원 개원으로 인한 수익 증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다.
- (18) 의장은 문혜성 평의원에 의견에 동의하며, 병원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에 대한 성과를 낼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다.
- (19) 전략기획본부장은 현재 의료원 상황만 설명한 것이며, 각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각 병원에 대한 설명 후 의견을 주시기를 요청하다.
- (20) 의장은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2023년도 결산안 설명을 요청하고,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 및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은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의 순서로 2023학년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21) 의장은 은행 차입금 상황을 유예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22) 서울병원 재무팀장은 은행 차입금은 실행할 때부터 거치 기간을 거쳐서 20년 상환하는 것으로 마지막 상환 연도가 2043년이라고 설명하며, 이것 자체가 유예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원금 중 일부의 상환을 일정 기간만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23) 문혜성 평의원은 유동성 부채에 있는 의학관 구입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24) 목동병원 재무팀장은 의과대학이 서울병원 쪽으로 이전하며 기존 건물을 진료 공간 확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25) 문혜성 평의원은 해당 공간 대여를 통한 수익에 대해 질의하다.
- (26) 목동병원 재무팀장은 의과대학 건물은 교수연구실과 학생 실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 소유의 건물을 의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어 구매한 것이라 구매한 금액 만큼의 수익 창출이 있는 공간은 아니라 답하다.
- (27) 문혜성 평의원은 의료원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과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지출을 분

리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다.

- (28) 목동병원 재무팀장은 결산은 사후적인 개념이라 지출과 수익을 연관하여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다. 다만, 특성화 병원에 대한 투자 분석 등은 별도 자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다.
- (29) 장원경 평의원은 은행 차입금을 유예한 이유와 유예로 인해 발생한 이자율 등의 차이와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다.
- (30) 서울병원 재무팀장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을 일부 차입금 상환을 6.5년 거치 18.5년 상환으로 변경한 것이라 최종 상환 기간에는 변동이 없고,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적용받고 있다고 답하다. 그리고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상환 원금에 대한 유예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며, 은행 차입금 상환에 대한 계획은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고 3개월에 한번씩 상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31) 문혜성 평의원은 변동금리라면 현재 시장금리가 불안한데 오히려 뒤로 거치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다.
- (32) 서울병원 재무팀장은 금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금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다.
- (33) 김재욱 부의장은 같은 병원이니 유사한 표로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34) 박서림 평의원은 의료원의 상황이나 계획을 상세히 공유하면 학교 측에서 우려하는 지점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 (35) 전략기획본부장은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코로나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수익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병원 정상화를 통해 수익 발생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전공의 사태로 인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하다. 하지만 서울병원이 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예산 대비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타 상급병원 대비 나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다.
- (36) 목동병원 재무팀장은 서울병원의 투자를 위한 일부 운영 경비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확실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고 추가 설명하다.
- (37) 전략기획본부장은 현 사태가 장기화 되면 의료원이 힘든 상황이라 장기 대책으로 교육부에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서울병원이 타 종합병원에 비해 실적이 좋고, 예산 대비 105% 이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 전체 실적이 호전되고 있으나, 현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38) 의장은 장기 상환 계획 등에 의문이 있는데 단기 자료만 제공받아 궁금증 해소가 어렵다고 말하며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대한 부의장의 의견을 구하다.
- (39) 부의장은 오늘은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회의이므로 필요하다면 별개의 안건으로

향후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40) 의장은 추가 자료를 정리해 의료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하다.
- (41) 문혜성 평의원은 특성화 전문병원의 수익에 대한 결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42) 의장은 특성화 전문병원의 투자액과 수익액 등에 대한 결산 자료, 은행 차입금 상황에 대한 전체 계획표 및 이행 자료를 의료원에 요청하다.
- (43) 전략기획본부장은 특성화 병원별 투자 대비 수익 결산 자료와 은행 차입금 상황 계획표를 준비하겠다고 답하다.
- (44) 문혜성 평의원은 2027년에 상환액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다.
- (45) 서울병원 재무팀장은 거치 기간 연장에 따라 상환 금액이 누적되는 기간이 발생하여 병목 구간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46) 목동병원 재무팀장은 2015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대여한 것이고, 차입하는 시점부터 5년 거치 20년 상환이 되어 금액의 최고 누적 시점이 2026~2027년이 되며, 이후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와 원금이 줄어드는 형태로 2027년이 상환 금액이 가장 큰 것이라고 추가 설명하다.
- (47) 의장은 의료원의 결산 자료를 병원별 대비표로 병렬 작성하여 줄 것과 결산 자료 내 돈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표기할 것을 권고하다
- (48) 의장은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이화의료원의 2023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배석자: 기획처장, 기획처부처장(예산), 예산팀장, 회계팀장)

- (49) 의장은 학교 배석자 소개 및 안건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은 2023학년도 결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다.
- (50) 의장은 'Frontier 10-10 사업'은 연구비, 장학금 등 약 30억 원 정도가 맞는지 질문하다.
- (51) 예산팀장은 'Frontier 10-10 사업'은 우수 교원 초빙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교원 보수, 연구비, 장학금 등 다양하게 배정되어 있어 2023학년도 결산 금액으로 약 80억 정도라고 답하다.
- (52) 의장은 'Frontier 10-10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처에서 사전에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중 '초빙 교원 연구 성과 제고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반이 넘는다는 것을 공유하며, 80억을 투자해 효과가 미흡하다면 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지적하다.

- (53) 기획처장은 교내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사후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고, 자료에는 없지만 'Frontier 10-10 사업'에 채택이 되었다가 진행 과정에서 탈락된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심의 결과는 사업 선정 연구자가 특약 약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보고 이행을 위한 독촉 및 독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54) 의장은 'Frontier 10-10 사업'의 80억 원 투자에 대해 학교 발전을 위한 비용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결산 자료를 보면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심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책정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55) 기획처장은 해당 의견을 연구처에 전달할 것이며, 이후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을 평가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 (56) 의장은 'Frontier 10-10 사업'은 교직원 임금 5%를 인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학교의 미래를 위해 구성원들이 감수한 비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57) 장원경 평의원은 연구기금 중 연구과제지원이 10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Frontier 10-10 사업' 비용인 80억 원과의 차이와 원금기금에서 임의목적기금으로 이관한 이유 등을 질문하다. 그리고 'Frontier 10-10 사업'이 학교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과성이나 구성원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 우려를 표하다.
- (58) 예산팀장은 연구기금 관련해서 108억 원을 인출한 부분은 'Frontier 10-10 사업' 80억 원 외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과 기타 교내연구지원사업을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답하다. 학교 기금은 크게 원금보존기금과 임의기금 외 학교기금과 단위사업기금으로도 볼 수 있으며, 단위사업기금은 각 단과대학발전기금 등 단위사업 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본부에서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다. 때문에 사업기금 내에서 목적상 학교 재정 상황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금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여 원금보존기금에서 동일 목적의 임의기금으로 옮긴 후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설명하다.
- (59) 기획처부처장(예산)은 기금은 다양한 사용 목적이 있어 특정 목적의 기금을 다 사용하게 되면 해당 원금보존기금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금에 따라 적립이 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부족해서 원금보존기금에서 인출을 하는 부분도 있음을 추가 설명하다. 결산 금액은 2023학년도 예산 또는 추경시 절차적으로 심의를 얻어 승인된 부분이며, 실제 추경 대비 절감한 부분이 있음을 말한다.
- (60) 문혜성 평의원은 기금으로 이관하는 액수를 결정하는 원칙 및 규정이 있는지 질의하다.
- (61) 기획처부처장(예산)은 정확하게 기술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며 심의를 받고 있고, 예산 결정 후 추경을 통해 한번 더 조정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62) 문혜성 평의원은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기금 인출을 하고 있지만, 기금의 원금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 (63) 기획처부처장(예산)은 기준 마련 등을 고민하겠다고 답하다.
- (64) 의장은 2022년 병원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추후에 받는 것인지 질의하다.
- (65) 예산팀장은 의료원의 상황상 전입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계속해서 학교 경영진뿐만 아니라 기획처에서도 병원 측에 학교로의 전출을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2023학년도 병원전입금을 받았고, 내년 전입금 확대를 약속받은 상황이라고 답하다.
- (66) 부의장은 지난 추경 자료 대비 관리운영비와 연구학생경비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질문하다.
- (67) 기획처부처장(예산)은 관리운영비는 겨울 전력난방비의 감소로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답하다. 그리고 연구학생경비 중 연구비의 경우 교수님들이 미사용한 부분이 있고, 기타학생경비의 경우 코로나 이후 학생 행사 참여 증가 등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만큼 사용하지 않아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68) 박서림 평의원은 장학금 금액이 2023학년도 추경 예산 대비 결산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질문하다.
- (69) 예산팀장은 교외장학금 중 국가장학금은 추경 시 소득 수준을 예측할 수 없어 장학복지팀에서 예측하는 것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예측치를 여유롭게 잡아 추경을 편성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교내장학금의 경우 수혜 대상 학생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총학생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다.
- (70) 기획처부처장(예산)은 지출 예산을 적게 설정하면 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남겨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부연 설명하다. 교내장학금의 경우 추경만큼 사용 가능한 금액이므로 장학복지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혜 학생을 찾고 있음을 알리며, 총학생회에서도 도와주기를 부탁하다.
- (71) 박서림 평의원은 장학금 수혜 대상의 조건 중 소득 분위 및 성적 제한 등이 많아 수혜를 희망하여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양화하고 수혜 조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그리고 기타학생경비의 사용항목을 질문하다.
- (72) 예산팀장은 기타·학생경비는 학생과 관련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비용으로 수업 등 대학 운영 경비가 대상이고, 직·부속기관들에서 사용하는 비용 및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 기타·학생경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다.
- (73) 박서림 평의원은 최근 학생 의견 중 학내 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 해결을 요하는 부분

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시설 용역비와 관련하여 학내 노동자 임금 문제 등을 학교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하다.

- (74) 예산팀장은 시설 용역비는 경비, 용역, 미화, 방제 등을 포함하여 시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합의를 거쳐 임금이 결정이 된다고 설명하다.
- (75) 부의장은 임금 협상은 용역사 내에서 합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고, 학교는 용역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다.
- (76) 장원경 평의원은 교내 장학금 중 입학 장학금의 경우 성적 기준이 높아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장학복지팀과 논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그리고 장학금과 관련하여 기존 수혜 학생들을 위한 장학 금액이 줄지 않도록 운영하여 달라고 당부하다.
- (77) 장원경 평의원은 건축 임의기금 중 EWC 건립기금 19억 원을 유지하는 것인지 질문하다.
- (78) 기획처장은 단과대학에서 기금 마련 및 기부금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일정이 미루어지며 본격적인 기금 모금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다. EWC와 관련된 청사진이 마련되면 기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하다.
- (79) 의장은 교내 냉난방비의 비중이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등을 추가하는 대비(신규 투자)가 있는지 질문하다.
- (80) 기획처장은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학교 예산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재정 상황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에너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다.
- (81) 의장은 초기 투자 비용은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이익이 될 것이므로, 학교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 (82) 기획처부처장(예산)은 학교 측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며, 투자에 대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다.
- (83) 의장은 기금 운용수익이 전년 대비 증가가 크다고 말하며, 2024학년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질문하다.
- (84) 기획처부처장(예산)은 펀드 수익률이 좋아 유지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하다.
- (85) 의장은 본교만큼 졸업생분들의 헌신이 큰 학교가 없다고 강조하며, 기금의 상당이 졸업생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다.
- (86) 의장은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2023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 제3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3호의안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2025학년도 편제조정위원회 심의 및 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서 학부, 학과, 전공별 입학정원을 반영하고자 학칙 제5조 제1항 [별표 1]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먼저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공과대학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의 입학정원이 34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되었다고 말하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대학 인공지능학과와 데이터사이언스학과를 연계융합한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를 신설하여 33명을 순증 받았으며, 기존 정원 80명에 순증 인원을 더하여 신설 학부의 입학정원이 113명이 되었음을 설명하다. 다음은 자연과학대학의 화학생명분자과학부를 폐지하고 각각의 학과로 조정하는 편제조정과 더불어 학과별 입학정원을 분리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마지막으로 호크마교양대학 내 학부 신설 건으로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의 심층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기존 통합선발 입학생은 호크마학부에서 관리하고,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들은 글로벌학부 소속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두 개의 학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3) 박서림 평의원은 관련하여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의견 중 가장 많았던 것은 편제 조정안이 학생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것임을 강조하다.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전공의 정원 증원은 기존 정원을 회복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과 전자전기공학전공의 커리큘럼 유사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증원이 된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말하다. 인공지능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 신설된 이후로 매년 편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전하다. 또 신설 대학으로 전임 교원이나 공간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정원이 증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다. 자연과학대학의 학과 분리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사전에 학생들이 공유받지 못했던 것에는 불만이 있었다고 전하다. 호크마교양대학의 경우 하나의 단과대학에서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을 함께 관리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운영 방식이 궁금하다는 학생 의견을 전하다. 마지막으로 편제 조정과 관련하여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4) 의장은 편제 변동에 따른 타대학 정원 조정이 있었는지를 질문하다.
- (5) 간사는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의 경우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증원이고, 인공지능대학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는 순증이 된 것이라 타대학 정원조정은 없다고 답하다.
- (6) 의장은 순증된 정원을 학부로 합쳐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다.

- (7) 기획팀장은 첨단학과 순증은 2024학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첨단분야에 대해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한 대학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교육부 평가시 2024학년도에는 대학 자체 정원 조정에 가산점을 주었고, 2025학년도에는 융합학부를 만드는 것에 가산점을 주어 본교는 인공지능학과와 데이터사이언스학과를 융합하여 신설하는 안을 만들게 된 것이라 말하다. 관련하여 인공지능대학 학장 및 관련 학과장과는 공유하였으나 선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생에게까지 공유하는 것은 조심스러웠다고 설명하며, 순증 승인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교육부 지침에 맞춰 우선 신청하고, 최종 승인받은 사항으로 심의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다.
- (8) 의장은 증원 인원이 모두 순증된 것인지 질문하다.
- (9) 기획팀장은 모두 순증된 것이며 타학과 정원은 동일하다고 답하다. 그리고 융합학부 신설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비율 25%를 충족하게 되어 학과별 정시통합선발 배정 인원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추가 설명하다. 인공지능대학 편제 조정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이해하며, 이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다.
- (10) 의장은 타 학과 정원 조정은 없지만 이전부터 다른 학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신설 학과들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임을 강조하다.
- (11) 민병원 평의원은 편입학 여석은 여러 개의 학과로 분산되어야 하는 것인데 첨단학과를 만드는 것에 활용한 것이므로, 실제로 다른 학과에 피해가 되는 것이라 말하다.
- (12) 문혜성 평의원은 해당 학과의 교원들이 모두 동의한 것인지를 질문하다.
- (13) 기획팀장은 모두 동의하였다고 답하고,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대학에서 요청한 건이라고 추가 설명하다.
- (14) 간사는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2년 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되었던 분리모집을 2025학년도 편제에도 적용하는 것이고, 인공지능대학의 학부 신설 순증으로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비율(25%)을 충족하게 되어 38개 학과에서 64명을 조정해야 하는 학교 전체 갈등 요소들이 소거되었다고 설명하다.
- (15) 문혜성 평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조정 시에도 교수와 학생이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리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논의한다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다.
- (16) 간사는 마땅히 추가되어야 할 절차적 요건 중 하나임에 동의하고, 앞으로는 학생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다.
- (17) 의장은 신설된 첨단학과의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본교의 전통적인 강점이 있는 학과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하다.
- (18) 기획팀장은 교육부가 지정한 첨단분야에 해당하는 학과만 증원을 신청할 수 있어 본교

- 가 전통적으로 강한 인문사회계열 및 자연계열은 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다.
- (19) 의장은 정원 증원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본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 (20) 박서림 평의원은 인공지능대학의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신설대학으로 전용 건물도 없고 학생 자치도 불안정한 상황이라 학생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하면서 전임 교원 확보 및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다.
- (21) 기획팀장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전공과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교수님들께서 커리큘럼을 마련하였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운영될 것이라 설명하다. 그리고 교원 및 공간 확보 계획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신설 학과이기 때문에 교원의 TO는 계속해서 증가할 계획임을 답하다.
- (22) 간사는 학생들의 걱정에 대해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다.
- (23) 의장은 승인된 편입학 여석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 질문하다.
- (24) 기획팀장은 2024학년도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 신설 시 30명을 순증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자전기공학전공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당시 전자전기공학전공에서 30명을 감원하였기 때문에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30명을 배정한 것이라고 말하다.
- (25) 의장은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다.
- (26) 기획팀장은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학과로 조정이 어렵다고 답하다.
- (27) 의장은 학교 전체가 첨단학과를 위해 희생한 것이라며, 편입학 여석을 배정받지 못해 피해를 받게 되는 학과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다.
- (28) 민병원 평의원은 첨단학과의 경우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변동이 생겨 기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권고 의견을 말하다.
- (29) 의장은 유행 및 정부 지침에 따라 학과들을 만드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30) 민병원 평의원은 스크랜튼대학 내 국제학부가 있고 대부분의 학과에서 영어강의를 진행하며 외국인 학생들을 받고 있는데, 호크마교양대학 내 글로벌학부를 만드는 것의 명분이 무엇인지 질문하다.
- (31) 기획팀장은 호크마교양대학 내 글로벌학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공 진입 전까지 소속되어있다 전공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수준이 되면 본인의 소속 전공으로 진입하는 형태라고 답하며, 외국인 학생의 생활 지도, 한국어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추가 설명하다.

- (32) 문혜성 평의원은 글로벌학부가 마치 독립된 학부로 생각되어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33) 기획팀장은 영문명칭은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Global Scholars Program'으로 정하였다고 답하다.
- (34) 장원경 평의원은 글로벌학부 신설과 관련하여 호크마교양대학 소속 교수님들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되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글로벌학부에 소속 될 다수의 학생들이 영어보다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일텐데 호크마교양대학 소속 교수님들은 영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 본인들이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다는 불만과 우려가 있다고 전하다. 또한 호크마교양대학은 본교 정시입시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입학팀의 의견이 없었는지 질문하다.
- (35) 기획팀장은 호크마학부 및 글로벌학부 신설은 입학팀과 논의한 사항이며, 기존 호크마교양대학 소속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명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하다.
- (36) 박서림 평의원은 자연과학대학 학부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 재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하다.
- (37) 기획팀장은 이번 편제 개편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 입학생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전공을 결정하고 이후 전공 변경도 가능하다고 답하다.
- (38) 의장은 2025학년도 편제 개편 및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학과에 피해가 있어 정의성이 상실되는 것과 유행에 따라 신설된 공과대학의 전공이 유행이 지났을 때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
- (39) 부의장은 전자전기공학전공이 본교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 유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 말하며, 이번 증원은 그런 부분을 원복하는 형태이므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다.
- (40) 의장은 부의장의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학과에 피해가 되어 문제가 있다고 말하다.
- (41) 민병원 평의원은 이렇게 다른 학과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만, 전자전기공학전공의 경우 정원 조정 규모가 컸기 때문에 조정안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 (42) 의장은 전자전기공학전공 정원 조정안을 가결하되 이로 인한 타학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 달라고 권고하고,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편제 및 정원 조정안과 관련하여 다른 평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 (43) 문혜성 평의원은 학과를 폐지하거나 신설할 때 반드시 학생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말하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안들은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계획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 (44) 간사는 학생 의견 청취 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 (45) 의장은 문혜성 평의원의 의견대로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을 권고하다.
- (46) 부의장은 공과대학과 인공지능대학이 편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 선생님들의 발령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우려를 표하다.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편제조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학교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원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의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 (47) 의장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 심의에 승인한 것으로 의결하고 심의를 종료하다.

□ 제4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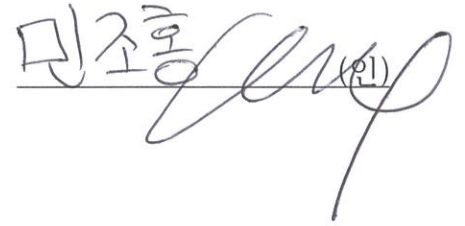
- (1) 의장은 제4호의안으로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먼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의 온라인학위과정 전환에 따른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두 번째는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에 갈음하여 연구 실적을 승인받은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연구실적 인정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3) 장원경 평의원은 해당 학과의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질문하다.
- (4) 기획팀장은 그렇다고 답하다.
- (5) 문혜성 평의원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학과 구성에 대해 질문하다.
- (6) 기획팀장은 4개의 학과가 있으며, 임상약학과와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는 온라인 학위 과정이고 임상헬스케어학과와 보건학과는 일반학과라고 답하다.
- (7)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 심의에 승인한 것으로 의결하고 심의를 종료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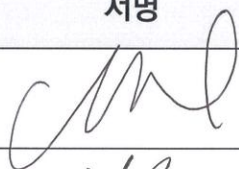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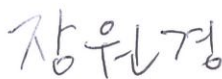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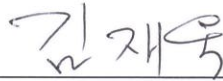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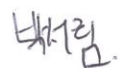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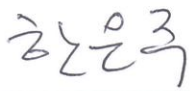


2024년 4월 19일

의 장 민 조 홍

민조홍 (인) 

대학평의원회 2024년 제2차 회의

일시	2024. 4. 19.(금) 14:00	장소	본관 대회의실
안건	1.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 2023학년도 결산안 자문 3.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4.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구분	성명	서명
교수 평의원	민조홍	
교수 평의원	문혜성	
교수 평의원	장원경	
교수 평의원	민병원	
직원 평의원	김재욱	
직원 평의원	정연화	
학생 평의원	박서림	
학생 평의원	전현주	
동창 평의원	이명경	
동창 평의원	한은주	
대학발전 평의원	오숙환	
대학발전 평의원	김정권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4. 19. 제8기 대학평의원회 제2차 회의가 성료된 바 있습니다.

심의 안건 '제3호의 안'(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중 안건의 승인 여부에 대한 평의원들의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그 부분의 확인을 구하오니 가/부에 대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결내용을 회의록의 부속자료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 심의·의결 확인 사항: “인공지능대학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 및 정원 증원”

[인공지능대학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 및 정원 증원]

변경 전	변경 후
-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u>113명</u>
인공지능학과 <u>40명</u>	인공지능전공
데이터사이언스학과 <u>40명</u>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소계 <u>80명</u>	소계 <u>113명</u>

* 첨단학과를 연계융합하여 단일 모집단위로 개편

※ 교원확보를 충족을 통한 첨단분야 정원 순증(교육부 승인(인재양성정책과-3169, 2024. 4.16.)

평의원	승인 여부
민조홍	가 / 부
문혜성	가 / 부
장원경	가 / 부
민병원	가 / 부
김재욱	가 / 부
박서림	가 / 부
이명경	가 / 부
한은주	가 / 부 (비회신)

2024. 4. 23.

대학평의원회 의장 민조홍

민조홍 (인)